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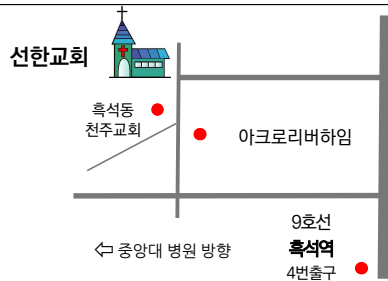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 육 목 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로마서 12:1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7장
교	독 문	교독문 30 (시편 67편)
찬	양 과 경 배	361장 (통일찬송가 480장)
대	표 기 도	박영근 장로
말	씀 봉 독	마태복음 6장 5~10절
설	교	이렇게 기도하라1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네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 (잠3:21-35)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일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 교인동정

김수예집사 모친 이양례집사 소천(8월 5일)

한주간의 기도제목	오직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세상의 무너진 마음들을 위로하기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나기를

가정예배

서약한 대로 살자

찬송 :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통 331)

본문 : 호세아 3장 1~5절

말씀 : 주님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멋진 사랑 고백과 서약으로 장가든 분입니다.(호 2:19~20) 그런데 신부가 놀랍게도 바람이 납니다. 신부는 음식 옷 술 같은 것을 잘 사준다고 알려진 정부를 따라나선, 이스라엘이란 어미였습니다.(호 2:5) 그럼에도 신실한 남편인 주님은 서약대로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정으로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1절) 호세아는 창녀가 된 아내 고멜을 은 열다섯 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속전으로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신실한 지아비와 지어미로 살자고 부탁드립니다.

선지자가 보여준 대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개과천선의 기회를 줄 겁니다. 4절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 시대엔 사방으로 흩어져 고단하게 살아가겠지만, 그 기간 연단 받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뭔가 많이 준다는 우상에게 바람이 들어 쫓느라고 예배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예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시절을 만나게 되리란 뜻입니다.

이런 시절에도 개과천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변화와 성숙의 희망을 품어도 좋을까요. 물론입니다. 희망의 근거는 우선 하나님의 기다림, 곧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수치를 견뎌내는 참회와 용기를 낸 돌이킴의 고백도 있습니다.(5절) 지금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 덕에 삽니다. 이런 사랑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러겠노라고 서약도 했습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사랑의 정절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건포도를 넣은 빵’이 탐나서, 바알을 따라나섰던 이들을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또 성격과 기질 차이뿐 아니라 세대 진영 남북 차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갈등과 분쟁의 자리에서 기다림의 사랑을 증언하며 버텨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이렇게 기도하라1 (마6:5-10)
서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론	1.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1.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1)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5절) (2)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6절) (3) 중언부언하지 말라(7절) (4)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7절)
	2. 바른 기도의 내용	2. 바른 기도의 내용 (1)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9절) (2) 하나님을 향한 간구: 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9절) ② ‘나라가 임하시오며’(10절) ③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10절)
	3. 교훈	3. 교훈 (1) 내게 있는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2) 내가 하고 있는 중언부언 기도는 무엇인가? (3) 나의 기도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결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조계승 장로

매일 Q.T.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날짜 : 8월 17일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로마서 11:1-10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선민인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브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꺼져 가는 불씨를 남기듯이 남은 자를 남겨 두셨습니다(참조, 스9:8). 성경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므로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 때문에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그들을 넘어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비진리의 거치는 돌이 되고 울무와 덩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나는 그 속에 포함되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찬양과 기도	내가 매일 기쁘게 (새 191/통 427)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 중국인이 작은 철 조각을 붙인 나뭇잎을 물에 띄워 놓고 지켜보는 일을 되풀이합니다. 나뭇잎이 빙빙 돌다가 매번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역사가와 고고학자 들은 최초의 항해 도구인 나침반이 이렇게 해서 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길 떠나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지형지물을 보면서 진로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철 조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인 지구의 자기장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에 붙인 철 조각이 자연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인 남북 개념도 몰랐고, 작은 철 조각 하나가 매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하는 선원과 여행자 들이 나침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 두신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침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나침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가고 있나요?	
말씀 나누기	로마서 12:1~8	
묵상포인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갑니다.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할 때 공동체는 믿음의 터 위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1~2절)	
적용하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풍조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이 땅의 유익을 탐하던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해 행함으로 교회에는 덕을 끼치고, 세상에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참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지혜롭게 행하여야 할 성도	날짜 : 8월 21일
찬양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본문	로마서 12:9-14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지켜서 공동체에 누를 끼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어리석게 행하게 되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받은 바 직분과 은사에 따라 적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지니는 동시에 각 지체들의 다양성을 지니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필요한 영적,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손대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 또한 성도간에 사랑을 나누는 중요한 실천 덕목인 것입니다. 성도뿐 아니라 낯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묵상질문	1. 최근에 내가 다른이를 대접한 적이 있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유대인 구원	날짜 : 8월 18일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로마서 11:11-24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로부터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 선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하여 저희 중 얼마를 구원케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자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방 선교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은 뒤로 하고 이방 선교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구속 섭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지가 꺾여졌으나 참감람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성도는 돌감람나무로서 참감람나무의 '꺾이어 나간 가지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 것을 강조함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시키시는데 하물며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을 못시키실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도 범죄할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찍어 버리셨으므로 돌감람나무였다가 접붙임을 당한 이방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범한 교만한 죄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음을 인하여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죄악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묵상질문	1. 나는 참감람나무에 늘 붙어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	날짜 : 8월 19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로마서 11:25-36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으로 긍휼을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용하시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와 경륜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를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교리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묵상질문	1.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성도	날짜 : 8월 20일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로마서 12:1-8		
	성도가 드셔야 할 제사는 산 제사인데, 바울은 이를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훈했는데, 이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가 세상의 죄악된 사상과 습관을 버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 구별된 것이어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성도의 삶은 세상의 죄악된 것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함으로써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좇아 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름으로써 사단의 기뻐하는 뜻을 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오늘의 기도			